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목주기도 성월, 연중 제28주일
제31권 46호(가해) 2011.10.9

[묵상]



목주기도의 성모님<17c, 카라바조, 비엔나 미술사박물관>

하늘나라는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 베푼
풍성한 혼인 잔치에 비길 수 있습니다.
잔칫상은 이미 차려졌고 임금은 기다리시지만
자기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긴 초대받은 이들은
하늘나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임금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처음 초대가 잘못된 것을 아신 임금은
종들을 보내어 모든 사람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잔칫방은 손님으로 가득차야 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늘나라로 초대받지만
최종적으로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하느님이 원하시는 어울리는 예복이란
화려한 턱시도와 드레스가 아닌
부르심에 응답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초대를 받았지만 응답하지 않은 사람과
참석은 했지만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
이들이 받게 될 처분은 결국 같은 것입니다.
이미 참석한 우리들의 선택은 하나입니다.
바깥 어둠 속에서 울며 이를 갈 순 없지 않습니까!

-櫃-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예비자 교리반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전신자 성경통독	저녁 미사후 오전 9:00 오전 11:00 오전 10:00, 오후 8:00
금요일	병자영성체(1째주) M.E. Sharing(3째주)	오전 10:0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성령기도회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8: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만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 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빈첸시오회 • 울뜨레아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2:30 오전 9:00 낮미사 후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밍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
특전미사	(생)유지숙 그레이스 & 제프리 마티네스, 성호재 시몬, 에블린 페리아, 김지수 보나 & 김지혜 크리스티나, 김풍길 바오로 & 김제희 모니카 가정
주 일	(연)권순봉 요안나, 고준희 제임스, 구승희 베드로, 오진 베드로, 김영수 테레사, 김시형 시릴로, 송봉규 요셉, 한병열 토마스, 서진경 안드레아 & 조명길 루시아
낮 미사	(생)김은 아나, 이용식 베드로, 김풍길 바오로 & 재희 모니카 가정, 정동호 하상 바오로 & 병옥 율리아 & 에나&린다&엘리스, 박금례 소화 테레사, 이재숙 테레사, 박승준 스테파노 & 길주 카타리나, 빈첸시오 회원들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 25,6-10

화답송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주시네.㉠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제 2독서 필리피서(Philippians) 4,12-14.19-20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주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복 음 마태오(Matthew) 22,1-14<또는 22,1-10>

영성제송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321	202	182
봉헌	378	259	269
성체	367	299	287
파견	241	220	240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서론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머물러 계십니다.”

게시 현장 「하느님의 말씀」이 교회의 삶 안에서 하느님 말씀에 대한 관심을 다시 살아나게 하고 하느님의 계시에 대한 신학적 숙고와 성경 연구를 크게 촉진하였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0년간 교회 교도권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선언들을 해 왔습니다. 성령의 이끄심 아래에서 자신이 꾸준히 걷고 있는 여정을 의식하고 있는 교회는, 이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를 거행함으로써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를 더 깊이 숙고하여 공의회 지침들의 실행을 검토하고 현대가 그리스도교 신자들 앞에 내어놓는 새로운 도전들에 응하도록 부름 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느님 말씀에 관한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4. 제12차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의 정기 총회에서, 온 세상에서 온 주교들은 하느님의 말씀 둘레에 모였으며, 상징적으로 성경 본문을 회중의 한가운데에 모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의 삶 안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길 위험이 있는 사실을, 곧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질문들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기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주님께서 하느님 백성 한가운데에서 이루고 계신 모든 것을 이야기했고, 우리의 희망과 염려들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교회라는 “우리”안에서만, 서로 듣고 수용하는 가운데에서만 하느님의 말씀과 우리 자신의 관계를 더 깊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의 때의 여러 발표들에서 나타났던 세계 여러 곳의 교회 생활에 관한 증언들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의 모임에 참석할 초대를 받아들이는 우리 형제 대의원들의 말을 듣는 것도 감동적이었습니다. 특별히 교부들이 높이 평가하였던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 바르톨로메오 1세 성하의 목상을 기억합니다. 그뿐 아니라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는 처음으로 우리 성경의 한 부분이기도 한 히브리 말 성경에 대한 소중한 증언을 해 줄 라뻬를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오늘도 성령 강림이 이루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많은 언어들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곧 교회 안에 세계의 모든 언어들이 있다는 의미에서만 아니라, 더 깊은 의미로, 곧 교회 안에 하느님과 세상을 체험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문화들의 풍요로움이 있으며, 오직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방대한 인간의 체험을 볼 수 있고 또 그 결과로 하느님 말씀의 방대함을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말입니다.”<◆계속>

버려진 초대장

“하느님이 인간을 빈손으로 세상에 보낸 이유는 누구나 사랑 하나만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이고, 하느님이 인간을 빈손으로 저 세상으로 데려 가는 까닭은 한평생 얻어낸 그 많은 것 중에 천국으로 가지고 갈만한 것은 오직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서”라는 어느 소설가의 말이 명주실 같은 따사로운 가을 햇살을 타고 마음 한가득 비추는 계절입니다.

어릴 적 동네 냇가에서 뛰어놀 때는 작은 그물 하나면 충분했고 뒷동산을 오를 때면 운동화 한 켤레면 충분했습니다. 어릴 때는 세상 살아가는 데 이렇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리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비해 불과 몇십 센터의 키가 자랐을 뿐인데 필요로 하는 것들은 수천 배, 수만 배로 늘어난 느낌입니다. 욕심 보를 키우는 것은 어렵지 않았으나 반대로 욕심 보를 줄여 가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먼 훗날 욕심 보 때문에 천국 계단을 오르는 것이 버겁게 느껴지거나 앓을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오늘도 세상 잔치에 골몰하느라 천상 초대장을 까마득히 잊고 살아가는 느낌입니다.

오늘 복음 속에서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혼인 잔치를 베푸는 임금에 비유합니다. 임금은 손님들을 기다리지만 초대된 이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초대에 응하지 않고 보낸 종들마저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실망한 임금은 초대된 이들 대신 다른 이들로 잔치를 벌인다는 이야깁니다. 초대된 이들은 이스라엘을, 보내진 종들은 예언자들을 뜻합니다. 결국, 하느님은 당신 아들을 통해 마지막 초대장을 발송하며, 이제 그 초대장이 이교 백성을

향해 날아갈 것임을 경고합니다. 2천 년이 지난 오늘날 하느님은 오늘도 초대장 발송에 정신이 없습니다. 다만,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 수취인이 달라졌다는 점이겠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초대장을 받아든 신앙인들 역시 2천년 전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 싶습니다.

오늘도 천상 잔치보다 지상 잔치에 골몰하는 우리는 하느님 말씀보다 동네 아파트값 오르내림에 희비가 교차하고 미사와 기도 시간은 아껴도 건강을 위해 몇 시간씩 운동을 하는 것은 마다하지 않으며 천상 양식인 성체 모시는 것은 주저해도 이것저것 몸에 좋다는 보약과 비싼 건강보조식품은 꼭 챙깁니다. 노년을 위해서는 얼마의 돈이 저축되어 있어야 하고 연금이나 건강보험 몇 개는 들어놓아야 안전하다고 믿는 모습 속에 천상 초대장은 기쁨이 아닌 빔 독촉장처럼 부담스럽기까지 합니다.

초대받았지만 방 한 곁에 던져진 초대장은 갈바람에 뒹구는 낙엽처럼 마음만 심란하게 할 뿐, 예복조차 준비하지 않는 어리석음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르지 않게 느껴집니다. 하느님이 가을을 아름다운 붉은 단청으로 채색하신 까닭은 우리의 마지막도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함이듯, 이제는 천상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욕심 보 늘리기가 아닌 욕심 보 줄이기에 조금 더 열심이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생의 가을에는 그래서 삶의 리모델링이 참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날이기도 합니다.

◆권철호 다니엘 신부/서울대교구 삼각지성당 주임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전지요 글라라	박희자 마리아	채승희 에스터
제1독서자	김태형 가브리엘	김교복 레오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서현수 율리아	서용숙 에스텔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1반

다음 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갈유현 미카엘	남성철 베네딕도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임정빈 보스코	권오상 바오로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김정아 아나스타시아	권순길 체칠리아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1반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주례

"주님께는 찬미를, 이웃에게는 사랑을, 살천하는 믿음을 독에 성자하는 백삼위"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목주기도를 바칩시다.

10월 목주기도 성월

◆ 새 예비자를
봉헌 합니다.

시월은 목주기도 성월이자 전교의 달이기도 합니다. 본당 설립30주년의 해인 올해 이제 두번째 새로 예비자를 모집합니다. 주변에 아직 하느님을 모르는 이웃들과, 알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서 머뭇거리는 분들에게 주님을 소개하여, 주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 우리 백삼위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초대합니다.

- 환영식 : 2011년 10월30일(주일) 낮미사 후, 강당
- 교리시간 : 11월3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 장소 : 2층 교리실
- 세례식 예정 : 2012년 5월27일 성령강림대축일
- 문의 : 복음화분과장 이영식 크리스토퍼 ☎796-6960

◆ 백삼위 신심단체 '1인1단체 가입' 캠페인 : 단체소개

본당 각 신심단체 활성화 및 회원가입 확대 캠페인의 일환으로 주일미사 후 '우리 단체에 오세요!' 소개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양업회, 요셉회, 대건회, 성모회, 자모회, 안나회, 레지오마리에, 빈첸시오에 이어 이번 주일은 **배론청년회** 차례입니다. 다음주일 성령기도회 소개를 끝으로 단체소개는 마무리됩니다.

▶오늘 주일(9일) : 배론청년회 ▶10월16일 : 성령기도회

◆ 신영세자 컷고해

- 일시 : 10월12일(수) 오후 8시 2층 교리실
- 대상 : 지난 9월18일(본당의 날)에 세례받으신 분들
- 대부모님들은 대자녀들이 고해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분과 주최 '연방정부 건강보험 세미나'

- 일시 : 오늘 주일(9일) 11시미사와 친교점심 후 오후 1시30분 강당

- 내용 : 미국의 은퇴연금과 건강보험 시스템(메디케어) 올바른 가입방법 등을 알려드립니다.
- 후원 : 수호천사보험 *문의: 차인수 안드레아 ☎256-6001

◆ 제대회 모임

- 일시 : 10월16일(주일) 11시미사후
- 장소 : 회의실(사무실앞)
- 제대회원 전체모임(점심식사와 함께)을 갖고자 합니다.
- 연락처 : 제대회장 오창애 안나 ☎(310)974-2857

◆ 토요일특전(청년미사) 피아노 반주자를 구합니다.

- 자격 : 사우스배이 거주자로 신앙 깊은 청년 피아노반주자
- 문의 : 김기석 바오로 배론청년회 밴드부장 ☎(310)713-3329

◆ 2012년 본당 새해달력 광고 스폰서 선착순 신청받습니다.

- 신청 : 오늘 주일(9일)까지 사무실에서 선착순 접수

◆ 안나회/요셉회 가을 온천관광

- 일시, 장소 : 10월18일(화),레이크 엘시노 온천장
출발 : 당일 오전 7시30분 성당 주차장
- 대상 : 55세 이상 형제 자매님들
- 회비 : 1인 \$30, 부부 \$50
- 준비물 : 수영복, 따뜻한 겉옷, 타올, 샌들
- 문의 : 한춘선 루시아 안나회 회장 ☎(310)738-4387

◆ 성모회 김치병 수거합니다.

- 김치판매 일시 : 10월29/30일(토요일특전, 주일미사)
- 문의 : 성모회장 최길숙 요세파나 ☎(310)738-4788황

◆ 미주 가톨릭 방송 재개

- 방송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 7시~9시(2시간)
- 사이클 : AM1650(라디오 서울)
- 문의 : ☎(213)220-1245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10월9일(주일) : 하버/카슨구역(북어국 \$3)
- 10월16일(주일) : 토런스 동2반(우거지콩나물국밥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구자운	김광자	김기석	김기정	김병조	김상규
	김선제	김성일	김원모	김윤진	김종렬	김종선
성전헌금	구자운	김광자	김기석	김기정	김병조	김선제
	김성일	김원모	김윤진	김현숙	민기남	박상원
교무금	박씨니	박인식	박종열	방정복	안재만	안태갑
	엄정자	이귀란	이근모	이명자	이상석	이영희
교무금	이은록	이재정	이재철	장영우	장영진	최이원
	정동호	정병훈	정연영	정지숙	주대중	최이원
교무금	최희태	한창주	한혜숙	황학수	합계 : \$4,230	
합계 : \$2,670						
한남제인 도네이션 : \$450						
특별목적헌금 : 김선제						
주보광고후원 : 이안셀모 \$1,000						
미사헌금 : \$2,848						
2차헌금 : \$1,126						

공지사항

◆ 주일학교 Lock-in

새학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친구들과의 만남과 주님안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시간들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 일시 : 10월21일(금) 오후 6시30분 ~22일(토) 오전 11시
- 장소 : 성당
- 참가대상 : 6학년~12학년
- 준비물 : 슬리퍼, 세면도구, 재킷, 성경
- 문의 : 주일학교장 이인석 비오 ☎(213)258-8665

◆ 첫영성체반/견진반 학부모와의 만남

- 첫영성체반 : 10월23일(주일) 오전 10시30분 2학년교실
대상 : 2학년 학부모
- 견진반 : 10월30일(주일) 오전 10시30분 10학년교실
대상 : 10학년 학부모
- 지도 : 문갑티스타 수녀
- 문의 : 첫영성체반 이진원 루시아 교무주임 ☎944-4579
견진반 신빈센트 교사 ☎(213)500-9448

남가주 소식

◆ 류명창 프란치스코 수사 'Children's play' 미술개인전

- 일시 : 10월12일(수)까지
- 장소 : Lee & Lee 갤러리 (3130 Wilshire Bl. LA #502)
- 문의 : 쏜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미주지회
원장 김효근 야고보 신부 ☎(310)380-4647

◆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Season 2

- 일시 : 10월22일(토) 오후 5시~10시
- 대상 : 남 25세 여 23세 이상 미혼 가톨릭신자
- 장소 : 성 토마스성당(412 N. Crescent Way Anaheim)
- 회비 : \$50 *신청문의 : 김민정 켈리나 ☎(213)247-4341

◆ 남가주 가톨릭청년연합회 성경퀴즈대회

- 일시 : 11월5일(토) 오후 5시30분
- 장소 : 성프란치스코 성당
- 퀴즈범위 : 모세 오경 * 선수 : 7명 * 상금 : 어마어마함!
- 본당문의 : 배론청년회장 박수민 히메리오 ☎(310)944-4579

◆ Korean Catholic Youth Day 2011

- 일시 : 11월12일(토) 오전 8시30분~오후 7시
- 장소 : 성 토마스 성당
- 대상 : 8학년~12학년
- 참가비 : \$20(티셔츠, 점심 포함)
- 본당문의 : 이인석 비오 주일학교장 ☎(213)258-8665

◆ 성골롬반 청소년 선교회 동계 선교활동: 뉴올리언스

- 일시 : 2012년 1월1일~1월7일
- 대상 : 대학생/청년
- 신청마감 : 10월 23일까지
- 지도신부 : 최용훈 요셉 신부 * 문의 : ☎(323)734-4946

소공동체 10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차 장 차 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장정진 베로니카 김명재 아가다 박은혜 클라우디아 이희경 크리스티나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변혜경 올리아나 920-5153	남명자 데레사 328-0847 10/14(금) 오후 7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조혜정 마리아 213-703-8122 10/7(금) 오후 7시 성당 강당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83	1	이진향 아메스 989-0366	김주량 요한 782-8549 10/15(토) 오후 7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10/8(토) 오후6시 차이나부페
	3	권영옥 루시아 720-2876	윤선희 로사 381-9489 10/17(월)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최경숙 수산나 320-0855	신성주 엘리사벳 850-0188 10/21(금) 오후 7시30분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10/13(목) 오전 11시 성당
	3	김희원 루시아 213-458-3356	이희경 크리스티나 213-458-3356 10/8(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0/15(토)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9750	1/2	유명련 마리아 985-2882	조소영 수산나 804-7645 10/8(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944-2737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최진수 애크세비오 377-0345 10/7(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금영도 베드로 482-9108 10/21(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김택수 프란치스코 544-9532 10/14(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윤혜영 클라라 902-5091 10/11(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제단체 모임의 날	
-----------	--

다음 주 단체 모임

사목회장단 모임	오후 1시
----------	-------

선교사들이 남긴 교훈

오키나와를 다녀왔다. 작년 홋카이도 트라피스트 수도원 피정 이후, 두 번째 갖는 선교 사제들의 모임이었다. 공항에서 만난 반가운 얼굴들. 한 해가 다르게 열여져가는 동료들의 머리숱은 그들이 각자의 선교지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장소는 나하(那霸)교구의 미션 비치였다. 얼마나 오래된 건물인지 창문에는 구멍이 숭숭, 빗바람 벽칠하며 폐가처럼 보이는 이층집 한 채가 텅그러니 서있었다. 뭇 먹고 그리 커졌는지 모를 야생쥐와 도롱뇽, 바퀴벌레가 우리를 맞이해 주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정채모를 쫓아낸 냄새와 뼈격대며 푹푹 꺼지는 마루 바닥. 마음이 계속 불편했다. 침실이 있다는 2층으로 올라가니 찜통같은 더위가 목을 조르고, 계다가 방안에는 찌그러진 야전 침대 하나 덩그러니. 이윽고, 참았던 불탄이 터져나왔다. '아, 이런데서 어떻게 1주일을 보내 나고!'

마중나온 교구청 직원의 이야기는 그랬다. 이 건물은 전쟁 후, 미국 선교사들이 군용 막사를 개조해서 쓰던 곳인데, 지금은 교구의 예산 부족으로 관리가 안 되어서 이 모양이란단다. 그 와중에 내 마음을 울린 말마디가 있었다. “선교사? 선교사들이지 내던 곳이라고?” 정말 그랬다. 그 말을 듣기 전까지만해도 벽에 잔뜩 붙어있던 영문 글귀들이 왠지 신경에 거슬리기만 했는데, 마음의 눈을 뜨고 보니 보이기 시작했다. 문장 하나하나가 주옥같은 기도문이었고, 철통같이 닫힌 내 마음을 그분을 향해 열어주는 손잡이와도 같았다. 그리고 이 기도들은 전쟁 직후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상처투성이로 살아남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선교사들의 복잡한 심정을 지탱해준 하느님의 돌보심 그 자체였다. 수십년 전, 선배 선교사들은 이런 후배의 마음을 꿰뚫어 보기라도 했는지, 주방 입구에 이런 말을 남겨 놓았다.

“오, 주님! 당신의 뜻은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만약”, “그러나”라는 말없이 이루어지나이다. 혹, 주님의 섭리가 당신을 이곳으로 이끄시지 않았다면, “만약”, “그러나”라는 말없이 이곳을 떠나주십시오.”

순간 부끄러운 생각이 온 몸을 감쌌다. ‘과연 무엇을 바라고 여기 왔던가? 특급 호텔 같은 편안한 잠자리를 찾아서 왔던가? 허를 살살 녹이는 산해진미를 바라고 왔던가?’ 비록 찌그러진 야전 침대 위에 침낭을 덮고 자든, 먹다 남은 재료로 찌개를 끓여 먹든 내가 머물러야 할 장소가 바로 여기라는 느낌이 들었다.

머무는 동안 선배 선교사들이 남겼던 교훈을 배우고, 그들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오히려 기쁨이 샘솟았다. 그렇게 주님의 뜻이 머무시는 곳이야말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을 배우고 왔다.

◆ 감기영 안드레아 신부/일본 히로시마 선교

이것을 알아두세요!

세례의 은총으로 신앙생활은 충분한데 굳이 견진을 받아야 하나요?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 값을 치루고 돌아가시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의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비싼값을 치루셨습니다. 그분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나타났습니다”(2고린 5, 17)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 승격되었고, 상속자의 인호를 받은 세례의 은총을 지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튼튼하게 자라나야 합니다. 견진성사는 ‘굳건히 하다, 강하게 하다, 쓸모 있게 만들다, 일어서게 하다, 견딜 힘을 주다’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아직 어린 세례인이 성장했음을 선포하는 성인식이 견진이라고 설명하고 싶은데요, 견진성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 믿음의 어른이 되어 이제 하느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견진은 스스로의 의지로 하느님의 부르심에 충실할 것을 맹세하는 특별하고 거룩한 성사입니다. 견진성사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더욱 강하게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믿음 생활을 기쁨과 평화로 한 걸음 도약하도록 합니다. 숨쉬 좋은 성령께서 하느님과 깊이 연결시켜 주는 자리입니다. 세상의 영이 아닌 하느님 성령의 인도로 살아가도록, 하느님의 뜻으로 단단히 무장되는 귀한 성사인 만큼 놓칠 수 없습니다.

◆도움말 : 장재봉 신부 / 부산가톨릭대학교